신고 순간부터 응급의료 시작… "생명을 잇는 역할"

■ 소방의 날 / 제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가다

2012년 종합상황실에 설치… 의료상담·병원 선정까지
수요 늘지만 9명 담당… "구급대 도착 전 골든타임 사수"

"팔을 좀 더 펴세요. 너무 빨라요. 팔을 펴고 다시 해보세요."

지난 6일 오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긴박감이 감돌았다. 제주시 구좌읍의 한 밭에서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신고 전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해 환자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한 구급상황관리 요원 유인석 소방교가 현장에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자가 심폐소생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하세요.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2~3분 후면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유 소방교는 신고자의 동작을 확인하며 심폐소생술 자세를 바로잡고, 구급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며 격려했다. 환자상태와 현장상황도 출동 중인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119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신고 순간부터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의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2012년 응급의료 상담 기능을 했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가 119로 통합되면서 운영이 시작된 센터에는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구급상황관리사들이 365일 24시간 근무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지도와 의료 상담, 병의원·약국 안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환자 상태를 파악해 가장 가까운 구급대를 출동시키고, 센터는 신고자와 통화를 이어가며 음성이나 영상으로 응급처치를 안내한다. 환자 상태를 파악해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에 따라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이에 맞는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올해 10월 말까지 센터를 통해 이뤄진 응급의료 상담·안내는 2만7850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6118건) 대비 6.6% 늘어난 수치다. 응급처치 지도가 1만76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의료 지도(5908건)와 이송병원 선정(1552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9%, 37.8% 증가해 두드러졌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주 구급상황관리 인력은 전국 평균(19.4명)보다 낮은 9명(행정 1명, 구급상황관리요원 8명)으로, 현재 '4조 2교대'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

신속한 신고와 센터의 응급처치 지도가 맞물리면서 골든타임을 지킬수 있었던 사례 가운데 지난 6월 있었던 한라산 심정지환자 소생 사례는 올해 가장 의미있는 사례로 남는다. 한라산 등산코스에서 아버지와 산행하던 10대 여고생이 쓰러진 40대 남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여고생은 산행 중 봤던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를 기억해 장비를 가져왔고, 아버지와 함께 센터와의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지도를 받으며 심정지 상태인 남성에게 심폐소생술과 AED를 시행·사용했다. 다행히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환자의 자발순환이 회복됐다.

고은희 소방장은 "응급의료는 119에 신고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그 중심에서 생명을 잇는 목소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는 도서지역 특성과 관광객 수요까지 고려해야 한다. 응급의료 상담과 이송병원 선정, 다수사상자 대응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원들. 박소정기자

SUV-승용차 충돌 후 식당 들이받아

운전자·손님 등 3명 경상

차량이 연쇄 충돌한 뒤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인근 식당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6분쯤 제주시 건입동에서 승용차와 SUV, 1t 트럭이 부딪힌 뒤 SUV가 식당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70대 남성과 식당 손님 40대 남성 1명, 5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10대 중증 환자 헬기로 서울 긴급 이송

경련 증세 지속… 제주 소아신경과 전문의 없어

지속적인 경련을 앓는 10대 환자가 헬기를 통해 타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8분쯤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부터 경련이 지속되는 10대 중증 환자를 도외로 이송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병원 측은 환자가 경련이 지속돼 소아신경과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소방에 이같이 도움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한라매를 투입해 경기소방본부 구급대와 연계해 환자를 서울 소재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열성 경련, 뇌전증, 급성 뇌염 등 소아신경계 질환은 응급상황이 많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이를 치료할 소아신경 전문의가 없는 상황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사고 위험구간 개선·교통안전 집중 단속

도, 무수천교차로 점검… 교통약자 보호 활동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사고 위험구간의 시설 개선과 연말연시 집중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도·행정시 교통관련 부서와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지역안전지수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분야 11개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다발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서 평화로 무수천교차로 일대의 반복적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제주도와 관계기관은 제한속도 하향과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등 기존 조치사항의 효과성과 보완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연말연시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도 강화한다.

경찰과 자치경찰은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은 재난전광판과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과 사고 예방 정보를 집중 홍보한다.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횡단보도 가시성 개선을 추진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구간의 시설 개선뿐 아니라 단속과 교육,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멧돼지·유해조류 포획 '성과'
서귀포시, 멧돼지 등 3224마리

서귀포시는 대리포획단을 운영한 결과, 2026년 10월 기준 멧돼지 133마리, 유해조류 3091마리 등 총 3224마리를 포획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33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운영 중이며, 농작물 피해 지역과 유해야생동물 출몰 지역 중심으로 포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농가 피해 신고 120건에 대응해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과 포획 활동을 실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주요 포획 대상은 멧돼지, 유해조류(까치·까마귀 등)이며, 이 유해야생동물은 과수 등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백금탁기자

작업 현장서 사고 잇따라… 2명 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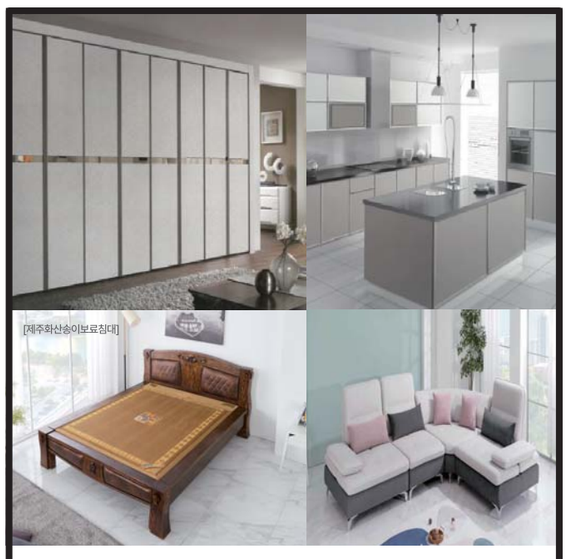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라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5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타워크레인바에 엄지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도남동 이도초등학교 인근 주택에서도 전기톱을 이용해 대리석을 절단하던 30대 남성 B씨가 약지손가락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씽크대 제작 / 붙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